



7절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선 가정에서 불경건의 그 어떤 모습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지체가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윌리엄 퍼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은

- 첫째, 주의 교훈을 통해 인자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가정입니다.
- 둘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진지한 경건의 소원이 있는 가정입니다.
- 셋째, 진리를 통해 거짓과 불의와 부패로부터 가정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브룩스는 “기도 없는 가정은 하늘의 온갖 폭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지붕 없는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위대한 영성이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5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설 가정예배 순서지

 하나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묵상기도 다 같이

설 명절을 맞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28장(통 28장) 다 같이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대표기도 가 족 중

성경봉독 시편 101편 1-3, 7절(옆면 참조) 다 같이

설 교 (옆면 참조) 인 도 자

축복과 나눔 서로가 덕담을 나누며 축복해 주세요 다 같이

찬 송 찬송가 304장(통 404장) 다 같이

-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소할 때 주 만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었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기도문 다 같이

대표기도 예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며, 서로 용서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1편 1-3, 7절(구약 875p)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 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설교문

시편 101편은 소위 "가장의 시편"으로 불리는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인자'는 가난한 자, 곤궁한 자, 압제를 받는 자나 상처 입은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정의'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을 평등하고 공의롭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자와 정의로 가족을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딤후 3:15-17).

둘째, 2절에서 다윗은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결심합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에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 '완전한 마음'이란 "열의 없는 위선적인 신앙과 반대되는 온전함이나 성실함"을 뜻합니다. 즉, 죄가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고 진지한 경건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시 119:9). '코람데오'(하나님 앞에서)란 말과 같이 신자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경건의 일관성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먼저 이런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 가정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3절에서 다윗은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한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비천한 것은 '도덕을 부패시키는 사탄의 악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가정의 경건을 침해하는 모든 수단으로부터 대적을 선언하고, 굽은 길로 가고 있는 구성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경건한 가정은